

낮지 않다는 문제의 의학 모델과 사회 모델의 차이 —ALS인의 관점에서

Contact : Yui Hasegawa
 Email : quarterback.yui@gmail.com

하세가와 유이(長谷川 唯) 학술진흥회 / 교토부립대학(번역자:안효숙)

배경 · 문제의식 “치료와 사회모델”

장애학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의학 모델로 보고 비판하며 사회 모델을 제안.
 그러나 의료거부만으로는 사회 모델로서 존엄사를 긍정하게 된다. 장애인은 이것을 좋다고 여기지는 않음.
 사회 모델은 “낮는 것” “치료”에 관한 문제를 의학 모델과 우위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ALS인 환자이기도하며 그 증상에 따라서는 신체에 장애를 갖기도 한다. 그 삶은 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런 사람에게 의료는 어떤 것이며, 사회 모델은 어떻게 파악하는 것일까.

목적과 방법

사회 모델이 치료나 의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ALS인의 생활관점에서 탐구한다
 ALS인의 생활상에서 “의료”의 언설을 분석한다.
 낮지 않는 문제의
 의학 모델과 사회 모델의 차이를 검토한다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라는 단어

석션이나 위루술등의
 의료적케어는 불가함.

개호인·개호사업소
 개호를 거절하는
 이유

의료인
 당사자의 생활이나
 타인의 의료행위를 제
 한할 권리

의료

병원·시설
 개별케어를
 거절하는 이유

그 사람의 생활이 아닌 증상이나
 상태로 케어나 생활을 판단한다.

의료적사항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생활을 통제하는 역할로 “의료”가 사용되고 있다

낮지 않다는 것

ALS 원인불명의 불치병

낮지 않다고 해서 의료가 불필요한 건 아님.
 일상속에서 신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 필요.
 그 생활에는 의료와 복지 양측의 서포트가 필요.
 ALS인들은 환자이면서 장애인임.

ALS인에게 의료란

약의 처방

특정질환의 절차
 (제도이용의 절차)

캐놀라(cannula)
 교환

생활에 필요함.

인공호흡기의 설정·
 관리

의료적케어의 지도

석션 지도

의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단, ALS인에게는 보편적으로 의료로서 카테고리화
 가능여부가 문제는 아니다.
 ALS인들이 「의료」를 실감하는 경우
 대부분은 의료의 컨트롤하에 놓여있다는 느낌임.

인공호흡기는 치료인가?

의료인에 의한 장착 및 그 설정이나
 관리 등을 감안하면 “치료” “의료”이다.

그러나 ALS인이 관리하고 생활한다면
 인공호흡기는 생활도구가 된다.

현재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함으로써
 외출이나 그밖의 생활이 제한된다.

생활도구로서의 인식이나
 역할을 느끼기 힘들다.



인공 호흡기가 “치료” “의료” 인 이상, 생존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나아가 존엄사라는 최악의 선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생존을 위한 사회모델과 의료모델의 차이

생존을 위한 의료

의학모델

사회모델

같은 사고형태이며
 우위성은 인정할수 없다

*** 의학 모델에서의 “의료”라는 담론의 의미 작용
 의료인의 특권적 지위 유지, 의료인밖에 못하는 배타적 영역에
 다른 사람을 들여놓지 않는 것, 또한 개호인 입장에서는 개호를
 거절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생활에 “의료”를 개입시키는 한 의료인이
 생활의 주도권을 쥐게된다.

ALS인의 생활에서는 자신이 생활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의료 기기가 “의료”가 아니라, 생활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닌다.
 누가 그 “의료”의 주도권을 쥐는가에 의학 모델과 사회 모델의 차이가 있다.

낮지 않는 것이 전제되더라도 의료나 치료가 생활의 일부로서 생사선택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능해야 한다.